

한계를 넘어 생명의 풍경으로

김진엽

(미술평론가, 전한국미술평론가협회장)

1.

박인혁의 작업은 2000년대 파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에서 작업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던 작가는 프랑스로 유학의 길을 택한다. 작가의 말로는 처음 파리에 왔을 때는 작업에 대한 흥미를 잃어 다른 분야의 일을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파리의 미술관이나 갤러리, 타국에서 온 작가들을 만나면서 작업에 대한 흥미를 다시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에서 느꼈던 예술에 대한 좌절감이 부담감 없이 예술을 접하는 새로운 환경 때문에 작업에 대한 의욕이 다시 생겨난 것이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옥죄어오던 예술의 무거운 그물망을 벗어던지게 되고, 예술에 대한 새로운 흥미를 느끼면서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에서의 구상형태의 직업에서 추상으로의 변모가 이때부터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박인혁의 작업을 완전히 추상으로 정의하기는 힘들다. 깊은 바다의 파도의 일렁거림이나 깊은 숲속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박인혁의 화면은 형상과 비형상의 경계를 넘어서는 작업이다. 이러한 의미 중심의 조형언어가 바로 박인혁 작업의 특징인 것이다.

2.

화면은 바탕색을 여러 번 겹치면서 긁어내거나 흘트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긁어내는 작업을 통해 화면의 선과 색채는 급격하지만 일정한 조화를 이룬다. 이것은 이미지가 계속 해서 이어지는 방식인데, 마치 눈길에서 계속 이어지는 발걸음처럼 사라지지만 다시 나타나는 환영처럼 이미지가 이미지를 부르는 방식이다. 그래서 박인혁의 화면은 순수의식에 투영된 환원이라는 추상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으로, 이미지들이 저절로 쌓아지고 무너지는 과정의 반복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편린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작업은 삶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형상과 추상의 의미를 넘어 삶의 본질에 다가간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서 박인혁의 이러한 이미지들은 과장을 거부한다. 즉 박인혁의 조형언어는 결정된 의미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결정될 의미를 우리에게 던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종횡으로 이루어지는 선들은 어느 순간 방향 없이 화면 전체로 퍼져 나가고 뭉쳐진다. 그러면서 선들은 이미지로 변하면서 연쇄적으로 생성되고 무한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의 연속은 과거의 불안을 담고 있으면서도 현재의 느낌을 명확하게 해준다. 즉 과거가 되는 현재의 순간순간을 묘사하는 이러한 방식은 의미를 통해 과거를 현재화시키고 현재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반복을 통해 리듬을 받아들이고 하나의 이미지로 다른 이미지를 소환하는 것은, 이미지와 사물의 미묘한 틈을 파고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틈을 통해 무한대의 공간과 삶의 고요를 체험하는 것이다. 이것이 박인혁이 새롭게 발견한 예술의 의미이며 무한한 공간의 적막함을 통해 자유로운 존재의 구현을 꿈꾸는 것이다.

3.

올해 프랑스의 전시에서 박인혁은 이전의 작업보다 밀도를 높이고 있다. 굵거나 문지르는

방식을 다양하게 해서 집중도를 높이고 다양한 색채의 사용으로 생명력 있는 공간을 형성한다. 이것은 삶의 지형도를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상성에 매몰되지 않고 초월적이지도 않은 삶의 긍정을 강화 시키는 공간의 지형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전의 무한의 공간과 고요에서 작가는 이제 강력하게 삶을 긍정하는 목소리를 낸다. 일상의 갈등과 고뇌, 절망이라는 과거의 생명의 공간을 현재화시키면서 하나의 풍경으로 전환시킨다. 이러한 풍경은 현재의 지평에서 과거를 쳐다보고 현실을 직시하는 풍경으로 무거움 대신 경쾌하면 생동감 넘치는 몸짓으로 다가온다.

또 이러한 풍경은 대상을 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내면에 자리 잡은 의식의 풍경이다. 이것은 삶의 여정에서 나타나는 풍경이기 때문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감상할 수 있는 풍경이다. 복잡한 듯이 보이는 화면은 사실상 경쾌한 화면이다. 모든 욕망을 비움으로써 나타나는 새로움의 경지, 그 경지에서 우리의 열정은 다시 살아나고 긍정적인 삶은 다시금 느낌이 된다. 과거의 절망과 현재의 냉엄함, 미래의 불안은 의식의 풍경이 가지는 영원의 시간 속에서 서로 만난다. 이러한 지평의 융합에서 삶을 관조하고 체험하는 예술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제 나무와 숲, 강과 바다는 감상이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삶의 현실이 된다. 그래서 박인혁의 그림 속의 풍경은 더 이상 정지된 풍경이나 묵시적인 세계가 아니다.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강렬한 삶의 의지가 숨 쉬고 있는 근원적인 풍경이며 이러한 풍경이 바로 작가가 우리에게 보여주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박인혁에게 있어 예술은 우리의 삶과 이미지의 삶을 함께 포용하며 유한과 영원을 화해시키는 매개체이다. 예술 장르의 구분을 넘어서는 이러한 화해의 세계는 삶의 경이로움을 새롭게 인식하고 존재의 원천으로 다가가는 세계이다.

Beyond the limits to the landscape of life

Jinyub Kim (Art Critic)

1.

Inhyuk Park's work began in earnest in Paris in the 2000s. Unable to find a clue for his work in Korea, the artist chose to study abroad in Europe, especially France. He says that when he first came to Paris, he lost interest in his work and took a job in a different field. Then he started to feel excited about his work again when he visited museums and galleries in Paris and met artists from other countries. The frustration he felt with art in Korea was replaced by a new environment where he was able to experience art without pressure, which rekindled his motivation. As he adopted to his new environment, he was able to shed the heavy weight of art, and he immersed himself in his work with a renewed interest in art.

The transformation from the initial figurative form to abstraction begins at this point, but it is difficult to define Park's work as completely abstract. His paintings, which ripple like waves in the deep sea or echo like echoes in the forest, cross the boundary between form and formlessness. This semantics-driven formative language is the characteristic of Park's work.

2.

Park's paintings are composed of multiple layers of background colors that are scratched or scattered, and the scratching process creates a jarring but constant harmony of lines and colors. This is the way the image continues to call out to the image, like a series of steps in a snowy road, like an illusion that disappears and reappears. Therefore, Park's canvas goes beyond the abstract meaning of an illusion projected on the pure consciousness, and ultimately reveals the small pieces of our lives through the repetition of the process of building up and collapsing by itself. In this way, his work can be defined as life-based, going beyond the meaning of form and abstraction to approach the essence of life.

At the same time, Park's images reject exaggerations. That is, his formative language does not focus on a determined meaning, but rather throws the meaning to be determined at us. The vertical and horizontal lines suddenly spread across the canvas without direction and converge. As they do so, the lines turn into images, creating a chain of generations and moving toward infinity.

This succession of images, while containing the anxieties of the past, also clarifies the feeling of the present. This way of depicting the moment that becomes the past, in other words, makes the past present through meaning, and the present objectively transparent.

To embrace rhythm through repetition, to summon one image to another, is to delve into the subtle gaps between images and objects. And through the gap, we experience infinite space and life. This is Park's newfound meaning of art, and he dreams of realizing a free existence through the silence of infinite space.

3.

In this year's exhibition in France, Park's work is denser than his previous works. The different ways of scratching and rubbing create a sense of focus, and the use of different colors creates a vibrant space. This seems to materialize a topographical map of life, creating a topographical map of space that reinforces life affirmation that is neither mired in the mundane nor transcendent.

From the former infinite space and silence, the artist now creates a powerful life-affirming voice. The past life space of daily conflicts, anguish, and despair is transformed into a landscape by making it present. These landscapes are landscapes of looking at the past from the horizon of the present and facing reality, and instead of heaviness, they come across as light and lively gestures.

Furthermore, these landscapes do not represent objects, but are landscapes of consciousness within the subject. This is a landscape that can be appreciated with a light step because it is a landscape that appears on the journey of life.

What appears to be complex is actually a lighthearted canvas. In the state of renewal that comes from emptying ourselves of all desire, our passions are rekindled and we feel positive again. The despair of the past, the coldness of the present, and the anxiety of the future meet in the eternal time of the landscape of consciousness. From this convergence of horizons is born the art of contemplating and experiencing life.

Trees, forests, rivers, and oceans are no longer objects of sentimentality or fear, but the reality of our lives and living. Therefore, the landscape in Park's paintings is no longer a static landscape or an apocalyptic world. It is a fundamental landscape that breathes with a strong will to live beyond our finite human limitations, and this is what the artist wants to show us.

For Park, art is now a medium that reconciles the finite and the eternal, embracing our lives and the lives of images together. This world of reconciliation, which transcends the distinction of artistic genres, is a world where we can recognize the wonder of life anew and approach the source of existence.